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보도자료

보도

2019. 4. 22(월) 14:00부터

배포

2019. 4. 22(월)

책임자

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3775-9035)

작성자

조영현 연구위원(3775-9032)

홍보담당

최원 수석연구원(3775-9057)

총 8매

한국금융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 보험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

-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4월 22일(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개괄하고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음을 보임. 향후 과제로는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
-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의 특징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혁신금융 과제로서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 강화,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 확대를 통한 M&A 회수시장 개선,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법제화 및 감독실무 변화 등을 제안
-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과제를 제안
- 발표에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음

※ 별첨 : 세미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문 각 1부 끝.

## [별첨 1] 정책세미나 개요

- ▣ 일시 : 2019. 4. 22. (월) 14:00~16:00
- ▣ 장소 : 은행회관(명동) 2층 국제회의실
- ▣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 프로그램

14:00~14:10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4:10~15:10	주제발표	<p>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②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③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p>
15:10~15:20	휴 식	
15:20~16:00	패널토론	<p>사회자 :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p> <p>토론자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p> <p>김영준 (AIA생명 상무)</p> <p>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p> <p>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p> <p>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p> <p>(가나다순)</p>

## [별첨 2] 발표자료 요약문

###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705-6343, bylee@kif.re.kr)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1)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2) 생산적 금융 강화, 3) 포용적 금융 강화, 4)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음
- 각 정책 목표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도 추진
  - “생산적 금융 강화”
    -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기업여신심사시스템 전면 혁신” 등 추진
  - “포용적 금융 강화”
    -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 등 추진
  -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시장 진입 등 추진으로 금융산업 경쟁 촉진 도모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금융 강화
    -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및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강화로 금융회사의 신남방 등 해외진출 확대 도모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신DTI 및 DSR 도입,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추진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서 성과를 내고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
  -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17. 5. 10 56.0bp→’19. 4. 16 31.93bp)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16년말 11.6%→’18년말 5.8%)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대
    -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도 하락(‘16년 말 1.42%→’18년 말 0.97%)
  -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 강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부문에서 혁신 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 중소기업대출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
  -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 '16년 33.6조 원 → '18년 40.8조 원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 '15년 4,465억 원 → '16년 645억 원 → '18년 1조 446억 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경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증가 등 포용적 금융 확대 등

#### □ 향후 과제

-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임
  -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짐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비 필요
  - 향후 금융산업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
  - 금융관련 업무단위 세분화, 기능별 감독 및 규제체계 마련, 금융과 비금융데이터 결합 등이 중요하며 금융회사도 데이터 확보와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비즈니스 마인드 변화 필요
-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증대
  -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 등을 위해 해외진출 확대 필요
  - 금융당국은 관련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장기적 비전하에 규제·감독 개선 추진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향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필요
  - 금융회사들은 장기적인 고객베이스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 현재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음
  - 경기 하향세, 세계경제 불확실성, 주택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불안 가능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필요

##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771-0830, yrpark@kcmi.re.kr)

- 혁신성장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민간주도의 생산적 자원배분과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실물)을 지원하는 금융
  - 현실적으로 혁신금융은 창업정책(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정책(스케일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정책
- '17년 11월 이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개선, 혁신금융 체계 정립 등을 목적으로 5대 주요 혁신금융 정책과 10여 건이 넘는 다수의 후속 또는 관련 대책이 발표됨
  -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정책으로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 11)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 3), 자본시장 개선정책으로서 자본시장 혁신방안('18. 1)과 자본시장 혁신과제('18. 11), 혁신금융 체계정립 정책으로서 혁신금융 추진방안('19. 3)이 발표됨
- 현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였으며,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정책방향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선진적 정책으로 평가되며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적 변화와 자본시장 규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성장과 고용창출에서 고성장기업의 기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혁신금융에서 기존 창업기업(스타트업) 금융과 더불어 성장지원(스케일업) 금융이 중요
  - 스케일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명시적 스케일업 정책, 운용사 대형화 및 역량 강화, 스케일업을 위한 부채성 자금조달 활성화, 기업의 벤처생태계 참여, IPO 시장 활성화, 비상장 장외유통시장 조성 등이 있음
  - 현재 혁신금융 정책은 스케일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점이 존재
- 혁신금융은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이에 대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향후 혁신금융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1) 성장단계 자본조달 구조개선:** 성장 자금수요의 지속 증가와 창업자 지분 희석방지를 위해 지분투자 이외의 간접금융(대출)과 직접금융(우량 고수익회사채)을 통한 자금조달 구조의 균형을 확보

- **(2)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 강화:** 정책자금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치제고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체계 개선
- **(3) 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참여 확대:** 금융을 통한 M&A 활성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생태계 변화 유도를 위해 장기적 지속적 정책 노력 필요
- **(4)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측정과 평가:** 정책펀드의 규모 확대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자 조정, 연계 지원, 성과평가 등이 필요
- **(5) 규제체계 발전과제:**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규제흡결 최소화, 감독실무 해석의 명확화, 규제체계 개혁에 따르는 세제상 혜택의 근거 마련 등

##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3775-9032, youngcho@kiri.or.kr)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글로벌 흐름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임
  - 이러한 금융규제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시경제 대응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사전적 금융규제의 부재로 인해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됨
-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금융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혁신이 부족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
  - 또한 저성장·저금리, 고령인구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금융산업 혁신정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주요 건전성 강화 정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이 있음
  -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회계 개혁 등을 추진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을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함
  -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금융산업의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국제적 금융규제 흐름에 부합하며, 경쟁 촉진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
  - 향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중요함

### <금융산업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향하는 목표와 현재 금융산업 수준 간의 갭을 줄여나갈 경로를 제시할 필요

○ 안정적인 정착과 시장 불안정 최소화에 노력할 필요

□ 금융회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은 경쟁 촉진에 의해 반드시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

□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금융소외, 가격차별화 확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킬 필요  
○ 또한, 신기술 도입 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 필요

□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점검

○ 공유경제에 의해 유희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나 재산피해나 배상책임발생 등의 우려

### <경영과제>

□ 금융회사는 정성적, 실질적 측면에서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움  
○ 소비자 및 투자자 관점에서 상품과 경영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